

시 집



드국화

설인 저

연변인민출판사

시 집

즐거움

설인 저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崔东日

责任校对：崔顺兰

技术设计：郑善淑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野菊花：朝鲜文 / 雪人著. — 延吉：延边人民出版社，
2009. 10

ISBN 978-7-5449-0723-1

I. 野… II. 雪…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
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90023号

野菊花

出版：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延边人民出版社

开本：880×1230 1/32 印张：7 字数：140千字

标准书号：ISBN 978-7-5449-0723-1 (民文)

版次：2009年10月第1版 2009年10月第1次印刷

印数：1-500册 定价：16.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影响阅读，请与印刷厂联系调换。

시집 《들국화》를 내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마디 적어둔다.

《환호의 들국화는》 해방직후 건국직전에 가졌던 감격과 결의의 노래이다. 그 감회를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 당시 발표작과 미발표작 중에서 각각 몇수씩 골라 이 책에 넣었다.

《아름다운 들국화》와 《추억의 들국화》는 필자의 청년시절 실련의 아픈 기록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의의가 있는데 첫째는 잃어진 사랑을 시라는 그릇에 담아보려는것이요, 둘째는 고뇌를 덜기 위해 이런 시를 쓰게 됐다는것이다.

상상은 시공을 뛰어넘었다.

그가 떠나갔어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방도가 《들국화》와 같은 시의 창작

이였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움과 고통이 가로 놓여있었다. 어찌보면 외기러기의 울음 같기도 하고 내 령혼의 통곡 같기도 했다. 환희도 있었으나 사랑을 잃었으니 사람은 그림고 노래는 슬펐다.

그런데 의외의 변화가 일어났다.

애가(哀歌)가 미가(美歌)로 전환됐다. 사랑에 패했으니 슬플것은 사실이나 이상하게도 이것이 힘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잃어진 사랑의 화신은 피닉스처럼 재더미를 털고 일어나 보이지 않는 역량으로 마의 등을 밀어주었다. 슬픔이 환희로 정화된것이라고 할가.

사랑은 힘이다. 인간이 사랑을 하게 되는것도 이러한 뜻에서 아닐가 생각한다. 이런 연시(戀詩)가 우리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려싶어 그중 일부분만 《들국화》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내놓았다가 반백년도 진작 넘은 오늘에야 그 대부분을 선보이게 된 연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아득한 옛일이니 떠나간 대화의 서정적주인공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일이다. 서로의 행복을 축원하며 살아왔을것이므로 혹시 지금 만나도 스스럼없이 반가울것이고 담담한 담소로 몇몇 하리라.

《추억의 들국화》는 그와 채 나누지 못한 이야기인 동시에 사랑이라는 문학의 영원한 주제를 좀더 제 나름대로 다루어보려고 시도한 필자의 심미관의 시적 표현이기도 하다.

나는 젊은 시절에 사랑에서 실패했고 늙어서는 반백년 서로 믿고 살던 안해를 먼저 저승에 보내게 되었다. 먼저는 패하여 아팠고 후에는 영결되어 아팠다.

문학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이 결여되면 값이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쭉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고통스러웠던 사실을 밝혀두는바이다. 글씨 병사이니 자연법칙이나 한뼉 믿고 살던 사람을 먼저 저세상에 보내고나니 가슴은 터졌다. 그래서 글을 썼다. 필자는 이것이 글이 됐는지 안됐는지 개의할 사이가 없이 너무 아깝고 슬퍼서 가슴을 치며 터친 엉—엉— 소리를 적었을따름이다.

아이들처럼 통곡했다. 실컷 울었다.

울고나면 개운했다. 울음은 끊기기 마련이고 마음은 차차 평온을 찾았다. 죽어간 사람도 이러기를 바랄 것이다. 생각하니 힘이 났다.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옛신조를 찾았다. 이래서 쓴것이 《유상의 들국화》이다.

《미소의 들국화》는 2007년 이후의 작품들이다. 자연의 심원한 아름다움과 인간애의 찬미와 부패의 타매와 늙지 않는 불로송의 노래이다.

이 신선하지 못한 자그마한 화환을 삼가 건국 60주년 대축전 그 한모퉁이에 올린다. 창작년대가 없는 것은 목차년대안의것이다.

이 시집 상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연변인민출판사 사장이하 관련 여러 선생님들, 이 시집의 출판을 위해 등을 밀어준 고 권철교수, 동분서주 여러 면으로 도와

주신 원 《연변문학》잡지 주필 리상각시인, 시집 출판을 선뜻이 후원해주신 연변동래지열유한회사 정일남 경리 등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설 인

2009년 6월



환호의 들국화
(1945년—1950년)

환호성	3
넙원	5
진군	7
자옥	9
전방에서 온 소식	11
자화상	15
사나이	19
가을	21

아름다운 들국화
(1946년—1956년)

풀밭	25
----------	----

몰랐노라	26
갈대인가	27
싱싱한 힘	29
사랑이란 대체	31
놀러 오세요	33
문제 함께 풀자요	34
날개 돌친 파랑새	36
노래해줄 때	37
오뇌	39
물장사	40
즐거운 나날	41
내가 듣는 물소리	42
농토에 봄이 왔어요	43
깊은 뿌리	45
푸른 5월로	46
샘물이 되겠어요	47
그대 묻는다면	48
그가 괴로와할 때	49
자정	51
구름처럼	53
무엇을 잃었을가	54
권고	55
피닉스	57
외마디노래	58
가을인가요	59

비너스	60
일터로 오라	62
파란 새 움처럼	63
영원할 노래	64
무엇으로 달랠건가	65
멀리멀리 갔어라	66
당신이 그리울 때	67
어디에 가서	68
모를거야	69

추억의 들국화

(2001년—2005년)

방식 웃는다	73
하도나 그리워	74
편지 쓰세요	75
편지 받았어요	76
그대도 말이 없고	77
아무리 그 흥곡이	78
한벌로야	79
먼나라로 가더라도	80
고요한 저녁	81
잘 안다고요	83
오선지	85

그대여 나는	88
불같이 그리움은	89
사랑 없는 인생	90
딸기	92
4중창	94
떠났다나요	96
오늘도 래일도	99
메운 자리	100
이만할가	101
그릇	102
물리나겠지	104
평행선	105
아니하게	106
자유를 줍시다	107

유상(遺像)의 들국화

(2007년 8월—2007년 12월)

피골	111
새벽 2시 20분	112
따끈한 밥	114
어쩔가 이거	115
하느님께 물어볼가	117
시름도 걱정도	119

북대하	121
신열이 39도	124
아침마다	126
사랑이 타리이까	128
사신(死神)	130
어진 마음	131
나무가지	132
가락지	133
그림자	134

미소의 들국화

(2007년—2009년)

녀인	137
산유유 강유유(山幽幽江悠悠)	139
모아산에 오르다	140
귀뚜라미	141
사랑을 말해본다	142
튤립	144
요람	145
미망보(未忘譜)	146
만수무강 제격이지	147
원단몽(元旦夢)	149
두려움 무서움	150

유혹	151
미수학발청춘송(米寿鶴發青春頌)	152
물어볼가	153
강뚝길	154
3월 1일	155
록색영웅	157
창세기(創世紀)	158
모아산	159
감사합니다	160
룽정	161
눈사람 만든 아이	162

고향의 들국화(시조)

(1993년—2007년)

바위	167
백의천사	168
강	169
산	170
조약돌	171
일군	172
세월	173
오지 마소	174
고개	175

키만 크다	176
올라보자	177
도약	178
허리 펴라	179
고향	180
빨래솜씨	181
나도 절로	182
천년만년 살가나	183
마음 놓고	184
시시각각	185
록수청산	186
가시는 님	187
걸음마다	188
웃음	189
사랑	190
록색	191
님님님	192
면사포	193
척씨네 가게보	194
어슬렁 칠월	195
행복	196
아득한 저 멀리	197
모아산	198
인생살이	200
고국땅에	201

부산의 메아리	202
발해성	203
두만강	204
국내성(国内城)	206
백두봉	207
만리장성	209

환호의 들국화

(1945년—1950년)



환호성

념원

진군

자욱

전방에서 온 소식

자화상

사나이